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폭발적인 기쁨과 파워

히12:1-2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기초, 핵심, 그리고 전부이다. 한 마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는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이고 부활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부활 장 고전 15:14-15, 19,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 주일에 예배, 오늘은 특별히 그 일이 일어난 시점,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 절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다.

오늘 아침, < >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부활의 폭발적인 파워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싶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

예수님의 고통, 여러 가지, 1. 겐세마네의 고통, 2. 자기 민족의 메시아 거부 고통, 3. 제자들 배신의 고통, 4.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의 고통

오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에 초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막15:22 그들이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

제름은 그곳에 사형된 사람들의 해골이 많았으므로 골고다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그 산 모양이 사람의 해골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 (*) 고든의 갈보리

이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 해골 같이 생긴 두드러진 언덕이고 큰길가여서 예루살렘 시내 어디서나 처형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예수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렸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신21:23). 처형 전 우주적인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 처형 위키 백과 나무 위키 백과

0.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죄수 처형 방법

고대 로마에서는 반항한 노예,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 등의 중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신성모독으로 고소되었다. 막14:61,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62, 내가 그니라. 64 너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는 죽어야 한다.

신성모독 등 종교 관련 범죄는 십자가 형 언도가 불가능하였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처형함. 십자가에 달린 죄목 팻말, 또한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눅23:38).

1. 처형 과정 채찍질

우선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한다(막15:15).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용 채찍은 땅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죽 끈을 풀 때 곳곳에 쇠 구슬, 날카로운 뿔조각, 쇠조각, 가시 등의 온갖 위협적인 흉기들을 박아 넣었다. (*) 게다가 형을 집행하기 전 채찍을 하루 동안 물에 담궈 불려놓아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때문에 단순히 피멍이 드는 정도는 약과도 상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갔다. 이런 채찍질은 어깨에서 시작하여 등, 팔, 손, 가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 발바닥까지 전신에 무자비하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사형수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얻어맞은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져 나오고 그 밑의 골격 근육은 대부분 쏠려져 내린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된다'고 한다.

2.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함

이렇게 온 몸이 너털너털해진 사형수에게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처형장까지 이동시킨다.

십자가 형틀의 무게는 18kg에서 50kg. 빈사 상태인 사람이 쉽게 지고 이동할 만한 무게는 아니다. 그리고 이때도 넘어지거나 하면 채찍질을 당한다.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통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당하면 그만큼 빨리 상처의 조직이 죽어서 전신이 불로 달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예수님의 경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감(마27:32)

3. 이렇게 처참하게 만신창이가 된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으로 오면 십자가에 매단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등에 15-20cm 크기의 못을 박는다.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이다. 이 못 때문에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 손이란 부위 자체가 촉감이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라 손목에 대못을 박으면 역시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무게로 인해 상처가 점차 찢어져갈 테니 더욱 고통스럽다. 발등 역시 뼈가 밀집한 곳이라 여기에 대못을 박는 것 자체가 뼈를 상하게 만드는 탓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
4. 그리고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한다. 얼핏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는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최악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가 가해져 고통이 극대화된다. 못에 잔뜩 끼었을 이물질로 인한 감염 때문에 파상풍이 일어난다. 여기에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다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 이를 시작으로 온 몸의 다른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진다. 거기다 양 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어 가슴을 압박하며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때문에 사형수는 생존 본능상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몸을 세우려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야 하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버리면 또 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온다. 결국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
5. 십자가형의 수형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하며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지치면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거나 혹은 호흡 산독증에 빠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로 사망한다.
6.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온다. 단순히 피만 흘러면서 갈끔하게 죽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 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 채로 썩어 들어가며, 통제를 잃은 신체에서 분비되는 자신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 죽는다. 동시에 극도의 갈증을 느낀다. 내가 목마르다(요19:28). 시22:13-18
7.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형이라서 로마제국도 이것을 사형 중에서 최악의 사형으로 규정해 두었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했다. (*) '말 못할 고통, 미칠 듯한 고통' 라는 뜻의 'excruciating'의 어원이 바로 이 십자가(cross)에서 왔으며 문자적으로 excruciating은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이다.

이 정도 설명이면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죄가 되셔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요10:17-18). 겐세마네에서 잡히기 전, 마26:53,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12,000명의 천사들, 그러면 성경기록들을 이룰 수 없다.

유대인 지도자들, 가롯 유다, 빌라도, 헤롯, 로마 구인들, 무지한 백성들 다 일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십자가 고통을 견디셨을까?

히12:2가 우리에게 답을 준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의 수치를 떨시하셨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다.

1. 부활해서 하늘 아버지 옆에 앉는 기쁨(롬1:4), 그분께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 단 한번

2.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기쁨(빌2:8-10)

3. 왕들의 왕, 주들의 주(계17:14)

4.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부활시켜 결혼한다는 기쁨(요14:1-3)

5. 신구약 시대 모든 믿는 자들 구원한다는 기쁨

6. 마16:18,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쁨

십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떨리서 바라본 이 모든 기쁨의 핵심 원인은 그분의 부활 부활이 없이는 이 모든 기쁨 불가능하다. 핵폭탄과 같은 것

부활의 파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단 번 속죄, 지옥 형벌 담당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십자가 죽음이 효력을 다하지 못한다. 기독교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있어야 복음이 완성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4, 복음의 핵심, 성경기록대로...

롬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믿는가?

이 모든 고통, 그 뒤의 부활 승리 기쁨의 목적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15:11).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바라본 기쁨

최종 수혜자: 우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모든 고통을 떨시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히12:1, 히11장 믿음의 사람들, 고통과 고난, 세상의 핍박(11:36-38)

엎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경주길을 달려가자.

12:2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우리 믿음의 핵심: 십자가 고통, 우리 앞에 놓인 기쁨, 핵심: 우리는 부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당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자기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크리스천 믿음의 핵심이 있다.

변화된 삶

부활로 인한 예수님의 기쁨, 이것이 절망에 차 있던 11제자에게 들어감.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인 파워가 발생함, 설교 1번에 3,000명 구원,

설교의 핵심,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행2:23-24).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부활의 기쁨, 행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기쁨의 찬송, 왜? 자기들 앞에 놓인 부활의 기쁨, 세상이 무어라 해도, 어떤 고통을 주어도 우리는 부활한다. 항상 부활의 기쁨 증언

1. 예루살렘 유대인(행23:6)

2.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행24:14-15, 21)

3. 아그립바 왕(행26:8)

결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의로 인해 핍박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마5:11-12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과 권능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고후4:16-18(17)

이런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부활 주일의 의미
힘을 내서 인내하며 우리의 경주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